

李朝人物略傳 (七二) 哲宗朝 (續)

；鄭元容 李是遠 鄭芝潤 崔濟愚, ...

金滢植(抄)

哲宗朝

鄭元容 字는 善之오, 號는 經山이니 東萊人이라. 憲宗 辛丑에 右相을 拜하고 哲宗 壬子에 領議政을 拜하다. 哲宗이 昇遐함에 大王大妃의 命을 奉하여 高宗을 迎立하니라.

李是遠 字는 子直이니 全州人이라. 憲宗朝에 吏曹判書를 歷任하고 高宗 丙寅에 江華 留守가 되야 洋擾에 死하니 諡를 忠貞이라 賜하니라.

鄭芝潤 東萊人이라. 芝潤의 手掌에 『壽』字紋이 有한 故로 漢書에 芝生銅池의 事를 取하여 『壽銅』이라 自號하니 貴賤遠邇와 知與不知를 勿論하고 다 壽銅이라 號하더라. 壽銅이 嗜酒善詩하여 悲歡得失을 一切詩에 寓하니 『兒生 便哭君知否, 墮人間萬種愁.』라 한 驚句는 可히 人生觀을 透破하였다 謂할지니라.

崔濟愚 號는 水雲齋니 慶州人이라. 濟愚 1年이 二十에 世道를 慨歎하여 四方에 周遊할새 蔚山에 行到하여 谷邃泉甘함을 보고 挈眷卜居하여 德性を 涵養하며 道氣를 修鍊한지 十餘年에 道僧의 秘籙을 受하고 또 梁山郡 天聖山에 入하여 百五日祈禱를 行한 後에 哲宗 庚申 四月에 至하여 濟愚 1 天命을 受하였노라. 稱하여 靈符로써 人의 疾病을 治하고 또 呪文 十三字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를 作하여 教授하니 徒衆이 聞風坌集이라. 首門生 崔時亨(字 敬悟, 號 海月) 等으로 더부러 敎名을 定할새 『以誠敬信, 爲立道之體, 守心正氣, 爲修道之要, 布德廣濟, 爲行道之用, 道雖天道, 以其對西學, 强名之曰東學.』이라 하고, 또 諸科를 立할 새 『使入道者, 各自遵行, 第一 清水獻誠, 第二 朝夕食頃, 必告天, 第三 出入必告天, 以至日用動作云爲, 無事不告, 此爲修道之初程也.』라 하니라. 癸亥 冬에 宣傳官 鄭龜鎔이 慶州官軍 數百名을 率하여 龍潭 洞口를 包圍하고 濟愚를 逮捕하여 大邱獄에 囚繫하였다가, 高宗 甲子 二月에 妖言惑衆으로써 案法正形하다. 時亨이 濟愚의 遺言을 遵承

하야 萬難을 不顧하고 傳道布德하야 偃然히 一大敎門을 成하야 徒衆이 數萬人이라. 甲午의 風雲을 釀出하야 東洋의 局面을 一變케한 後 全琫準 等은 被誅하고 時亨은 四方에 周遊하다가 戊戌 夏에 逮捕處絞하고 其後에 孫秉熙, 金演局 等이 餘黨을 收拾하야 乙巳年間에 至하야 自中の 軋轢으로 孫秉熙 一派는 天道敎가 되고 金演局, 李容九, 金振泰, 朴衡采 等 一派는 侍天敎가 되니라.

高 宗 朝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 昱應 字는 時白^{시백}이오, 號는 石坡^{시파}니 高宗太皇帝의 生父라. 哲宗이 昇遐함에 無嗣하야 王大妃 趙氏 | 元老 鄭元容 等으로 하야금 昱應의 第二子 翼成君 初諱 ○○을 奉迎하야 大統을 入承하니 곳 高宗이라. 上이 私親 興宣君을 尊稱하야 大院君이라 하고 國政을 預聞케 하다. 高宗 乙丑에 大院君이 景福宮을 重建하고 丙寅에 佛國兵艦을 擊退하고 當百錢을 鑄行하니라. 丙寅 以來로 大院君이 斥洋의 義를 專主하야 內으로 西敎徒를 鋤除하고 外으로 强寇를 攘制하야 邊警을 累經하되, 威步가 少挫치 아니하야 辛未 夏에 斥和碑를 鍾街에 立하니 其文에 曰,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 하니라. 初에 高宗이 年幼하야 能히 庶務를 明習치 못함으로 大院君이 庶政을 攝行하다가 乙亥에 至하야 楊州 直谷에 退去하니라.

申櫨 平山人이라. 高宗 乙亥에 永宗島 砲臺에서 日本 軍艦을 砲擊함으로 丙子 正月에 日本 全權大使 黑田清隆 等이 來하야 舊好를 請修하거늘, 上이 中樞府事 申櫨과 副總管 尹滋承 等으로 하야금 江華府에 會同하야 黑田 等으로 더부러 約款을 定케 하니라.

金玉均 號는 古筠^{고筠}이니 安東人이라. 初에 玉均이 日本을 遊歷함에 本國의 內政을 改革코저 하야 高宗외 累々 陳達하니 上이 傾聽하야 玉均을 親信하더라. 甲申 十月 十七日夜에 郵政 總辦 洪英植이 各國 公使를 招請設宴할새 牆外火起함을 보고 閔泳翊이 先起하야 門外에 纔出함에 兇漢이 揮刃迎擊하야 泳翊이 被傷한지라. 座中이 다 驚散하거날 金玉均, 朴泳孝, 徐光範 等이 闕內에 直入하야 移御함을 請하고, 十八日에 李祖淵, 尹泰駿, 韓圭稷, 閔泳穆, 閔台鎬, 趙寧夏 等を 殺하고, 上이 輔國 李載元의 家에 移御하야 洪英植으로 右議政을 拜하고 朴泳孝로 前後營使를 兼帶케 하고, 金玉均으로 戶曹參判을 拜하고 徐光範으로 左右營使를 兼帶케 하고 徐載弼로 前營正領을 拜하다. 十八日 午後에 上이 舊宮, 觀物軒에 還御하고 日兵이 入衛하니라. 十九日에 淸國駐紮將官 吳有兆, 袁世凱 等이 領兵入闕하야 洪英植 等を 殺하고 大駕를 奉迎還宮케 하니, 金玉均이 朴泳孝 等으로 더부러 日本에 亡命하다. 甲

午에 金玉均이 日本으로부터 淸國에 往遊할새 刺客 洪鍾宇의게 被殺한 바 되니라.